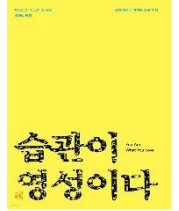


제 1 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 예배하는 인간

성경: 요 1:35-42

찬양: 찬 539 장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복음송/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38 절)를 물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내가 가장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히 4:12 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신다.” 히 4:14 의 “혼과 영... 을 찢어 찢개는 하나님의 말씀” 라는 말씀을 지식 지상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I. 습관의 힘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는가? (교재에서)

“주일에 놀랍도록 통찰력이 넘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다르게 살리라는 새로운 다짐과 확신으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지만, 화요일 밤이 되기도 전에 벌써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지식에 목이 마르다. 갈증을 느끼며 성경의 사상을 들이마신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뭔가 잊어버려서일까? 아직 더 습득해야 할 다른 정보가 있는 것일까? 충분히 열심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

1. 무엇이 문제일까요?

⇒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2. 빌 1:8-11 에 나오는 바울의 중보기도 순서

⇒ 사랑에 지식과 총명, 선한 것의 분별,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II.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대의 지혜

1.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2. 이레니우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 있는 인간이다.”
3. 우리는 단지 사상을 담는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어떤 목적(telos)을 지향하는 역동적이고 목적론적인 피조물이다.
4.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우리의 사랑이 이 궁극적 목적을 바르게 지향할 때 ‘안식’을 누릴 것이다

III. 에로스(아가페)의 나침반: 사랑은 습관이다.

1.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궁극적 ‘텔로스(목적)’, 우리가 목표 삼고 살아가는 왕국의 모습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뜻이며 궁극적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2.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덕(Virtue)’은 결국 나의 사람됨의 일부를 형성한다.
3. 제 2의 천성인 습관이 ‘나(Me, 我)’를 형성하는데, 첫째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통한 모방을 통하여, 둘째는 실천적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 세워진다. 여기서 교육과 훈련은 음악의 이론(음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연습하는 것과 같다.

IV. 결론 -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바로 우리이다.

1.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궁극적 사랑이 실천과 문화적 의례에 대한 몰입을 통해 형성되고 지향되며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당신이 근본적 충성을 바치는 대상, 당신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 신념과 열정에 달린 문제다.
2. 이 말은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며, 마틴 루터의 설명처럼,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3.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당신이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다.
4. 인간이라는 말은 예전적 동물, 예배로 사랑이 형성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5. “삶이라는 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특정 신이나 정신적 존재를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 그 대상이 예수 혹은 알라든, 야훼나 위카의 모신(母神)이든, 아니면 불교의 사성제(四聖諦)나 범할 수 없는 도덕 원칙이든 간에 -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의 Kenyon College 의 졸업 연설 중에서)
6.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욕망조차도 의도적으로 무의식을 재조정하는 것은 바로 잘 짜여진 예전(Liturgy), 혹은 예배에 몰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과 갈망 - 정서적으로, 의식 이면에서 세상을 지향하는 방식 - 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 바라시는 바를 향하게 된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무의식까지 사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7. 기독교 예배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몰입해 있는 경쟁하는 예전들, 즉 은밀히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사로잡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에 대한 잘못된 전망을 지향하게 만드는 문화적 실천에 맞서는 대항적 형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은 예배다.

V. 함께 기도하기

1.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이 과정을 시작하며 성령께서 내적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 마음의 나침반이 삼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늘 조정될 수 있도록
4. 속회안의 속도원들의 기도제목을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VI. 속제

제 2 과의 세속 예전을 읽는 방법의 내용을 원 교재(책)를 통하여 미리 보시거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